

셰프 삼촌 이서진 “승기가 같이 하자고 해서” 돌봄 삼촌 이승기 “아이들 위해 끝없이 구애”

SBS TV 육아 힐링 예능
‘리틀 포레스트’ 출연

강원도에 ‘돌봄하우스’ 열고
아이들 밥 챙겨주고 돌보기
박나래·정소민도 함께 출연

“사실 저는 시골도 좋아하지 않고 아이들도 좋아하지 않아요. 승기가 자기가 모 든 걸 다 할 테니 제발 같이하자고 해서 하게 됐습니다.”(이서진)

“집사부일체”에서 이서진 형님이 제가 예능 촬영하는 걸 보고 많은 신뢰가 생기셨나 봐요. 그 이후에 제가 끝없이 구애했습니다.”(이승기)

12일 방송한 SBS TV ‘리틀 포레스트’는 이서진(48), 이승기(32), 박나래(34), 정소민(30)이 강원 인제 해발고도 800m에 위치한 짝박골에 ‘돌봄하우스’를 열고 아이들을 돌보는 육아 힐링 예능이다. 총 16부작으로 기획됐으며 드라마 시간대인 오후 10시대에 편성됐다.

이서진은 아이들의 건강한 식탁을 책임지는 ‘셰프 삼촌’이 되고, 이승기는 아이들 모두를 아우르는 ‘프로 돌봄리’로 변신한다. 열정 넘치는 박나래는 이서진과 함께 요리를 하고, 예능에 첫 도전하는 정소민은 짝박골 아이들의 인기 이모로 통한다.

이서진은 이날 영등포구 목동 SBS에서 열린 ‘리틀 포레스트’ 제작발표회에서 “처음엔 이 프로그램을 할 생각 없었다”면서 “승기가 같이 하자고 해서 출연하게 됐다. 다른 이유는 없다”며 웃었다. 실제로 절친한 친구 사이이기도 한 이들이 한



배우 이서진(왼쪽)과 이승기가 12일 새 월화 예능 ‘리틀포레스트’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예능에 고정으로 출연하는 것은 ‘리틀 포레스트’가 처음이다.

농담처럼 육아에도, 자연에도 관심이 없다고 한 그는 “그냥 그나마 조금 할 줄 아는 음식 좀 배워서 아이들 밥을 챙겨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주인 공이라고 생각하고 서포팅 하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서진은 tvN ‘꽃보다 할배’ 시리즈에서도 돌봄을 담당했다. 아이들 돌보는 일과의 차이점에 대해 그는 “선생님들은 저 혼자 챙기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는데 이

변엔 동생들이 있어서 조금 더 편하게 느껴진다”라고 덧붙였다.

이승기는 이서진에 대해 “저는 열심히 하고 몰입하는 스타일이지만 반대 시각을 갖고 바라봐 줄 수 있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서진 형님처럼 솔직한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부탁을 드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출연자들은 조심스러워하지만, 아이들은 조금 더 도전해보려고 하더라. 아이들이 자연을 통해 얻어가는 자신감

이 크고, 자신의 능력치를 더 높게 잡게 되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 같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월화 예능이 새로운 시도다. 이 시도가 시청자들에게 새롭게 다가 가고 즐거움도 줬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연출을 맡은 김정옥 PD는 다른 육아 예능과의 차별점에 대해 “이런 곳이 있으면 우리 아이도 한 번쯤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여름 극장가 성수기 맞아?

관객 지난해보다 600만 감소
‘엑시트’ ‘봉오동 전투’에 희망

올여름 극장 관객이 작년보다 600만명 가까이 급감했다.

상반기에 극장들은 ‘천만 영화’를 4편이나 배출하며 최고 호황을 누렸지만, 정작 성수기 농사는 흉작인 셈이다.

11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지난 7월 19일부터 8월 10일까지 극장을 찾은 사람은 약 1929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여름 성수기(7월 20일~8월 11일) 관객 2519만명보다 약 590만명 줄어든 수치다.

연간 관객이 가장 많이 드는 8월 첫 번째 주말(2~4일)도 373만명이 드는 데 그쳐 작년 8월 첫째 주말(3~5일)의 546만명보다 173만명이나 감소했다.

제작비 100억원대가 들어간 한국영화 4편이 7월 하순부터 차례로 개봉했으나,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올해는 ‘엑시트’가 개봉 11일째 500만명을 돌파하며 체면치레를 했다. 일찌감치 손익분기점(350만명)은 넘겼고, 신작 공세를 뚫고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해 장기 흥행도 점쳐진다.

‘봉오동 전투’도 2위에 오르며 ‘엑시트’와 쌍끌이 흥행 중이다. 이 영화는 190억원이 투입돼 최소 450만명이 들어야 제작비를 건질 수 있다. 현재 누적 관객은 약 150만명이다.

지난달 24일 개봉한 ‘나랏말싸미’는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이면서 100만명을 채 넘기지 못했다. 총 147억원이 투입된 ‘사자’ 역시 150만명을 동원해 손익분기점(350만명) 돌파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국영화 대작들의 흥행 부진은 관객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탓이 크다. ‘성수기인데 불만만 영화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 5월 23일 개봉한 ‘알라딘’이 여전히 박스오피스 10위권 안을 지키는 것도 그 방증이다.

상반기에 ‘극한직업’을 필두로 ‘어벤져스: 엔드게임’ ‘알라딘’ ‘기생충’까지 천만



‘엑시트’



‘변신’

영화 4편이 나온 것도 ‘성수기 흥작’ 이유로 꼽힌다. 우리나라 관객의 1인당 연평균 극장 관람 횟수는 4.2회다. 이미 많은 사람이 한 해 동안 불 영화를 상반기에 다 봤다는 의미다.

이에 올여름에는 천만 영화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영화계 관계자는 “40~50대들이 상반기에 ‘기생충’ 등을 이미 관람했다”면서 “이들을 다시 극장으로 불러들일 만한 파격적인 화제작이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여름 대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8월 중순에도 신작이 잇따라 개봉해 ‘2라운드 대전’이 펼쳐진다. 광복절 휴일을 앞둔 오는 14일에는 할리우드 영화 ‘본노의 질주: 스포츠&쇼’가 출격한다.

한국영화도 15일 ‘암전’을 시작으로 21일 ‘광대들: 풍문조작단’, ‘변신’ 등이 차례로 개봉한다. 전선규·서예지 주연 ‘암전’은 한 신인 감독이 상영 금지된 공포 영화의 실체를 찾아가면서 마주하는 기이한 사건을 그린 공포물이다. 여름 극장가에서 오랜만에 보는 한국 공포 영화라 젊은 층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1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모두 다 쿵따리	35 KBC 모닝 730
8	25 광복절 기획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닥터 365 35 수상한 장모
9	30 KBS 뉴스	00 여름아 부탁해(재)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웰컴2라이프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50 UHD 한식의 마음(재)	00 너의 노래를 들려줘(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10 생생정보 스페셜 55 살림하는 남자들(재)	00 12 MBC 뉴스 20 나는...산다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제9회 산토끼와 따오기가 함께 하는 창작동요제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겨울이 다투는 50 우리말 겨우기(재)		2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50 2시 뉴스 외전	
2	40 팔도밥상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00 뉴스브리핑
3	00 가요무대(재)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뽀뽀뽀 모두야 놀자 스페셜 55 뽀뽀뽀 모두야 놀자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20 모두 다 쿵따리(재)	00 고향견문록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라피	00 변신자동차 또봇	00 5 MBC 뉴스 25 경성판타지(재)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00 영재발굴단(재)
7	00 KBS 뉴스 7 40 전라도 매력청	50 태양의 계절	30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생방송 TV블로그 품지락
8	30 여름아 부탁해	30 글로벌24 55 덕화TV2 덕화다방	55 웰컴2라이프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1~2부
9	00 KBS 뉴스 9			
10	00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기획 시사기획 창 55 오돌말 김재동	00 너의 노래를 들려줘	05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00 리틀 포레스트 1~2부
11	35 UHD 숨터 40 특집 다큐 전쟁과 일본	10 지식채널E 프로젝트 배짱이	05 광복절 특집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부
12	30 KBS 뉴스 40 KBS 결자 다큐멘터리	05 스포츠 하이라이트 30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재)	00 광복절 특집 100분 토론	40 나이트 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20 명탐정 피트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페퍼 피그(재)
06:00 한국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7:45 마사와 곰(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12:10 미래교육 플러스	18:00 생방송 특목! 보니 히니1~5
07:00 로보가 폴리	13:00 다큐 오늘	19:00 제로니모 스티븐의 모험
07:15 꼬마버스 타요	13:10 최고의 요리비결	19:30 생방송 판다다
07:30 뽀뽀뽀 뽀로로	13:40 사건 브리핑 - 안전상황실	20:00 갤럭시 프로젝트
07:45 페퍼 피그	14:30 꼬마버스 타요(재)	20:40 세계테마기행
08:00 당동당 유치원1~2	15:00 출동! 파자마 삼총사	<중부유럽 시골 유랑기 2부 호수의 여름, 오스트리아>
08:30 몬가트	15:30 뽀뽀뽀 뽀로로(재)	21:30 한국기행
08:45 최고! 호기심딱지	15:45 출동! 슈퍼웍스(재)	<야마당에서 여름휴가 2부 우리들의 낙원>
09:00 마사와 곰	16:00 최고! 호기심딱지(재)	21:50 EBS 다큐프라임
09:30 원더볼스	16:15 세미와 매직큐브	22:45 건축담구 - 집
09:40 극한직업 스페셜	16:30 당동당 유치원1~2	
10:30 한국기행	17:00 EBS 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13일(음 7월 13일 壬午)

<p>子 36년생 사실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대응하라. 48년생 집중적인 흥기에 힘입어 탄력을 받게 되리라. 60년생 시간이 경과하면서 차차 호전 되리라. 72년생 편리한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이 맞다. 84년생 절제 했을 때 진정한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8, 48</p>	<p>午 42년생 눈에 띄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이 따로 있다. 54년생 명분은 무의미하니 실속을 차려라. 66년생 상대의 조언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겠다. 78년생 명백히 드러나서 속 시원하겠다. 90년생 패도난마한 후에 명확하게 처리 해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03, 87</p>
<p>丑 37년생 가려졌던 부분이 서서히 드러나리라. 49년생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날이다. 61년생 부수적인 일은 보류하고 실속 있는 일을 도모해야 한다. 73년생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법이다. 85년생 사소한 흥결을 주의 하라. 행운의 숫자 : 44, 14</p>	<p>未 43년생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버려라. 55년생 판도를 좌우할 정도로 중차대한 의미가 있을 것이니 핵심을 놓치지 말자. 67년생 체면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 낫다. 79년생 일시적인 현상에 불굴할 뿐이나 패배치 말라. 91년생 다듬을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41, 42</p>
<p>寅 38년생 다각적이고 복합적으로 역량을 발휘하라. 50년생 유혹이 있더라도 핵심을 벗어나지 말라. 62년생 관계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다. 74년생 한계를 분명히 해 두어야 내부적으로 안전하다. 86년생 다양한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46, 60</p>	<p>申 44년생 상호간의 입장과 처지를 고려하면서 나가는 것이 순조롭다. 56년생 판단이 섰다면 주저할 이유가 없다. 68년생 전반적인 관리에 세심한 공을 들여야 할 때다. 80년생 영광을 안는다. 92년생 변화를 예고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터지겠다. 행운의 숫자 : 53, 59</p>
<p>卯 39년생 최선을 다 해야 근사치에 접근할 수 있으리라. 51년생 소모적인 요인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63년생 생 할리적으로 정리해야 할 국망에 이르렀다. 75년생 미루어 왔던 것을 진행하기에 시의적절하다. 87년생 실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행운의 숫자 : 32, 57</p>	<p>酉 45년생 막힌 물꼬가 시원하게 트이는 이치이다. 57년생 안정된 궤도에 진입하라. 69년생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의 규모가 달라지겠다. 81년생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 93년생 합목적성이 성과를 배가 시키게 된다. 행운의 숫자 : 61, 68</p>
<p>辰 40년생 단순해야 집중하기에 용이할 것이다. 52년생 조짐을 무시한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리라. 64년생 낮게 책정하는 것이 지출을 최소화하라. 76년생 착각을 일으킬 수도 있다. 88년생 세밀한 시각으로 정치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05, 49</p>	<p>戌 34년생 잠자코만 있으면 된다. 46년생 모여서 의논해 본다면 명쾌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58년생 조짐이 보이거든 즉시 대처하는 것이 좋다. 70년생 사소한 것에서부터 위험이 썩을 수 있다. 82년생 좀 더 넓은 범위까지 인식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낫다. 행운의 숫자 : 09, 06</p>
<p>巳 41년생 변화가 있을 것이니 이에 대비 하라. 53년생 개별 판단이 요구되는 면모이다. 65년생 전반적으로 불안전하여 많은 허점이 보인다. 77년생 내용이 알차겠지만 시기를 맞추는 것도 요한다. 89년생 여러 사람이 모여서 신나게 즐기는 양상이다. 행운의 숫자 : 87, 21</p>	<p>亥 35년생 상당한 재산이 들어오거나 영광스러운 일이 보인다. 47년생 물심양면의 상호 조화가 이루어진다면 더 할 나위없겠다. 59년생 사소함에 얽매어 지지 말고 대의를 따르라. 71년생 마지막에 안락을 치는 이치이다. 83년생 속단은 후회나 실패를 몰고 온다. 행운의 숫자 : 92, 45</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사랑” ☎010-9790-8237